

미·일 통상마찰의 정치·경제적 분석(III)

유 경 택*

차 례

서 장 분석의 목적과 개요

제1장 미국의 보호주의와 미·일 통상마찰

제1절 미국통상법의 동향과 특징

제2절 미국의 무역적자와 보호주의

제3절 일본의 대미비교우위의 변화

제2장 미·일 통상마찰의 정치적 분석

제1절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제2절 품목별 미·일 마찰의 구조분석

제3절 금후의 미·일 마찰의 전개시나리오

제3장 무역수지 불균형과 마찰의 원인분석

제1절 미·일간의 산업경쟁력 격차

제2절 마찰의 원인과 주성분분석

제4장 미·일 구조협약의 무역수지의 균형화

제1절 미·일간의 경제구조 파라미터의 추계

제2절 일본의 대미수출특화도와 산업내무역

제5장 요약과 맺음말

참고문헌

제3장 마찰과 무역수지불균형의 원인분석

제1절에서는 산업경쟁력의 격차에서 오는 미·일 통상마찰의 경제적 구도를 도식화해

*상공부 공업배치환경과 화공사무관

본다. 제2절에서는 경제변수의 주성분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야말로 미·일 통상마찰의 주성분이며, 그 대일무역적자의 대부분이 미국 자신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제3절에서는 일본의 대미수출특화도를 분석해서 무역수지균형을 위해서는 산업내 무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제1절 미·일간의 산업경쟁력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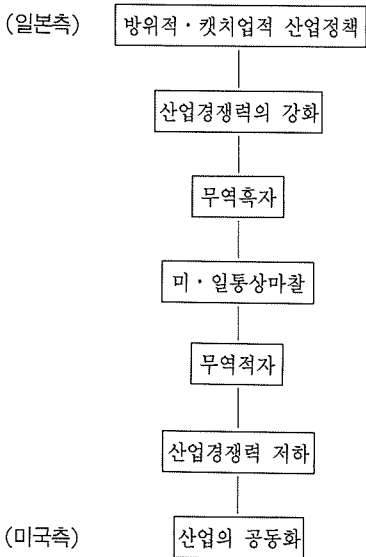
미·일의 무역수지불균형 문제에는 일본측의 시장폐쇄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역시 미국측의 재정적자, 저축부족이라는 매크로 경제적인 불균형,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즉, 일본은 방어적 캠퍼업 지향 산업정책을 취해오면서 2차에 걸친 석유위기와 엔화강세에 의한 수출부진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극복해 왔다.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의해 끊임없이 산업경쟁력 강화가 피해져 왔던 것이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강한 산업경쟁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산업의 공동화와 산업경쟁력의 저하가 지적될 수 있겠다. 미국은 스스로도 그것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어 1988년 미국통상법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항을 새롭게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의하면 재정증가 → 국민의 소득증가 → 소비증가 → 수입증가 → 무역적자 증가로 연결되어간다.

미국의 수입의 소득탄성치는 일본에 비해 높기 때문에(제4장 1절 참고) 소득증가는 수입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그것은 무역적자로 되기 쉬운 구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배경에 근거하여 미·일 통상마찰을 둘러싼 미·일간의 구조적 대조성을 강조하는 도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제2절 마찰의 원인과 주성분 분석

마찰의 큰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은 양국의 무역수지불균형이며, 양국의 무역수지불균형의 배경에는 산업경쟁력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경제변

수가 서로 뒤엉켜 있어 무역불균형의 해소 또는 정책협조의 방법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 변수간의 관계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변수를 무역요인, 재정요인, 금융요인, 구조요인 등 4종류의 영역에서 양국의 25개 변수를 취해 주성분분석을 해본다. 경제변수 중 GNP, GDP, Money Supply, 임금, 소비자자격 등 시계열적으로 증가경향에 있는 변수는 제외하고 분석한다.

[변수선택]

무역요인 :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환율, 수출가격, 수입가격

재정요인 : 재정적자(흑자), 세수, 정부지출

금융요인 : 이자율

구조요인 : 저축, 투자, IS Gap, 실업률, 생산자가격(일본은 도매가격)

양국의 25개 변수

[데이터의 출처]

IMF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of 1990

환율, 이자율, 생산자가격(도매가격), 수출가격, 수입가격, 미국의 재정적자, 세수, 정부지출

OECD : National Accounts, Paris, 1991

저축, 투자, IS Gap

일본은행 : 경제통계연감(1990)

일본의 세수, 정부지출, 재정흑자(적자), 실업률

통상산업성 : 통상백서(1965~1990)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양국의 무역적자(흑자)의 통계는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는 일본측 통계를 취한다.

미국경제백서 : 미국의 실업률

(분석기간)

일본의 대미무역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1965년부터 1988년까지(25년간)

(분석방법)

상관행렬에 의한 주성분 분석에 있어서 표준화시킨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단위가 변해도 고유벡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AS program).

(분석결과)

(고유치 1이상인 주성분은 3개, 누적기여율은 93%)

	Eigenvalue	Proportion	Cumulative
PRIN 1	17.9317	0.717267	0.71727
PRIN 2	3.6136	0.144545	0.86181
PRIN 3	1.7051	0.068204	0.93002

제1주성분만으로 72%의 높은 설명력이 있고 제3주성분까지는 93%까지 설명력이 있는 것이 표시되어 있다. 변수선택이 정확하게 행해졌다고 하면 제3주성분까지 마찰의 원인의 93%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각 주성분의 고유벡터가 높은 것)

PRIN 1 : ATDE, AIS, AGD, JER, JIR

PRIN 2 : JEP, JIP, AUR

PRIN 3 : ANS, AER, ANCF, AUR(-)

다만, ATDE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AIS 미국의 IS Gap

AGD 미국의 재정적자

AUR 미국의 실업률

ANS 미국의 저축

AER 미국의 환율(Dollar/SDR)

ANCF 미국의 투자

JER 일본의 환율

JIR 일본의 이자율

JEP 일본의 수출가격

JIP 일본의 수입가격

이것은 미·일 통상마찰의 배경에 있는

경제변수의 시간적 행동에 주목한 분석이다. 나중에 나타나듯이 마찰의 시간적 국면의 추이를 특징지우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했다.

제1주성분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재정적자, IS Gap이 추출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무역적자, 재정적자와 IS Gap(저축부족)이 함께 주성분으로서 나타나 있는 점이다. 그 합계가 IS Gap과 사후적으로 같아진다고 하는 매크로 경제이론(소위 「쌍둥이 적자」)에 있어서 항등식이 여기서 확인될 수 있다.

미국의 3변수와 함께 일본의 환율과 이자율이 동시에 제1주성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나타난 것은 그들이 자본이동에 의한 환율조정효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환율은 어떤 형태의 시간적 라그를 동반하여 미국의 무역적자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1985년의 프라자합의 이후, 엔화강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1965년부터 1988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1979년 이전의 「엔화약세」, 프라자합의 이전의 「달러화강세」의 국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제1주성분으로서 얻어진 5개 변수의 상호 관련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귀분석을 통해 분명히 밝힌다.

제2주성분은 일본의 수출가격, 수입가격과 미국의 실업률이다. 일본의 수출가격경쟁력과 미국의 실업률이 미·일 통상마찰의 배경에 있는 것이 추측되어진다. 「품질경쟁력」에 대해서는 적당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시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1장 제3절의 일본의 대미비교우위의 분석으로 검토된 것으로 하고 싶다. 제2주성분은 제2장에서 분석한 미·일 통상마찰의 구조를 상기시키는 결과이기도 하다. 자동차마찰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따라 미국에

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UAW(전미자동차노조)가 일본차 수입규제의 청원을 제출한다고 하는 형태의 압력을 가해왔던 케이스가 바로 그것이다.

제3주성분은 미국의 저축·투자·환율이 다. 이들이 직접적 마찰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일본의 IS Gap이 직접 그 이면에 나타난 것도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중요한 마찰의 배경이 된 것은 짐작되어진다.

이것은 제1주성분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변수로 나타나 있었지만 여기서는 미국의 저축·투자 그것이 주성분으로서 미국의 대일적자와는 한발 거리를 둔 형태로 추출되어 있다. 기여율은 7%. 미국 독자의 구조적 요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미·일 구조협약에서는 미·일의 저축·투자밸런스의 문제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제3주성분까지 정리하여 마찰의 원인으로 이름붙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제1주성분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재정적자가 이 성분에 대해 부의 높은 득점을 얻고 있다. 기여율은 72%. 종합적 마찰긴장도의 지표로도 말할 수 있다.

제2주성분 「일본의 수출가격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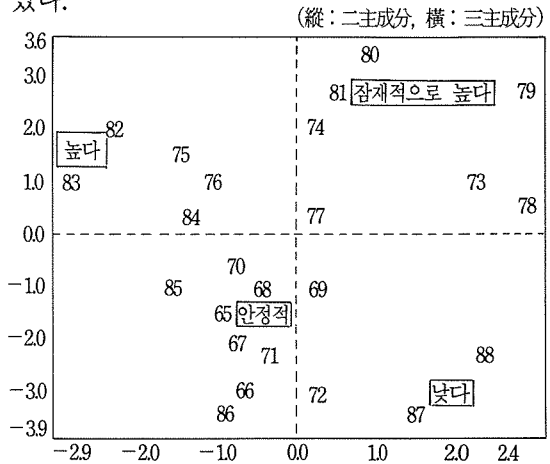
일본의 수출입가격과 미국의 실업률이 높은 득점을 얻고 있다. 기여율은 14%. 일본의 생산성 향상과 환율경직성 등에 의해 싸진 수출가격과 미국의 실업률이 엉켜져 나타난 것은 흥미 깊다. 반덤핑 제소는 일본의 수출가격경쟁력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암시해 준다.

제3주성분 「미국의 구조적 요인」

미국의 저축·투자가 정으로 높고, 실업률이 부로 높은 득점을 얻고 있다. 기여율은 7%. 무역마찰의 배경에 있는 미국 독자의 매크로 경제적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제2주성분과 제3주성분을 플랫폼해서 미·일 통상마찰의 긴장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1965년부터 1988년까지의 미·일 통상마찰의 동향을 분석해 보자. 제1주성분과의 관계를 제외한 이유는 시계열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경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긴장도의 정도를 「높다」, 「잠재적으로 높다」, 「안정적」, 「낮다」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각년도를 나누어 보면 (그림 3-1) 과 같이 된다. 전에도 진술했듯이 제2주성분은 일본의 수출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으로 클수록 마찰의 긴장도는 높아 온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제3주성분은 미국의 구조적 요인으로 負로 클수록 실업률이 높고 마찰긴장감을 증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1) 제2·3주성분에 의한 미·일통상마찰의 동향

전체적으로 보면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안정적 시기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는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능성이 대단히 컸던 잠재적 시기였으며, 1982년부터 1983년까지는 마찰의 긴장도가 컸었던 시기였다. 그로부터 점점 낮아져서 1987년부터 1988년에 있어서는 도리어 마찰의 긴장도가 낮았던 시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제1타입) 마찰의 긴장도가 높았던 시기
1982~1983년

(제2타입) 높아질 가능성이 컸던 잠재적
시기 1979~1981년

(제3타입) 안정적 시기 1965~1972년

(제4타입) 상대적으로 긴장도가 낮았던
시기 1987~1988년

제1타입, 마찰의 긴장도가 높았던 시기
(1982~1983년)에서의 특징을 찾아보자.

특징 : 일본의 대미수출가격경쟁력이 대단
히 강화된 시기로 미국에 있어서는 실
업률이 분석기간중예(1965-1988) 가장
높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양국의 수
출가격과 실업률을 비교해 본 것이 <표
3-1>이다.

<표 3-1> 미·일 수출가격과 실업률의 추이비교

국 가	수출가격			실업률		
	1981	1982	1983	1981	1982	1983
일 본	103.2	107.3	100.8	2.2	2.4	2.6
미 국	97.3	98.4	99.4	7.6	9.7	9.6

자료출소 : IMF(수출가격), 일본은행(일
본의 실업률), 미국경제백서(미국의 실
업률)에서 작성. 다만, 수출가격은 1985
년(=100)이 기준

일본의 수출가격은 1982년을 정점으로 점
점 낮아져서 1988년에는 1985년을 기준년도
(=100)로 하면 78.8까지 낮아진다. 한편 미
국의 수출가격은 상승을 계속하여 1988년에는
109.9로 된다. 즉, 1982년 이후는 가격면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잃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마찰의 배경에 있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현실로 마찰로 표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일본의 대미수출품목이
반덤핑으로 제소되었을 때 덤핑의 개념상으로
생각하면 미국측이 조사하는 것은 내외가격

차이다. 일본의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수출
가격, 수입가격의 추이를 보면 <표 3-2>와
같이 도매가격, 수출가격, 수입가격은 1982년
이후 점점 낮아져왔지만 소비자가격만은 계
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일본의 내외가격차에 관한 의문과 연결될 때
반덤핑제소에서 일본이 이길 확률은 낮다고
생각되어진다.

<표 3-2> 일본의 수출·수입·도매·소비자가격의 추이

지 불	1970	1975	1980	1985	1988
도매가격	48.6	76.2	100.5	100	86.6
수출가격	71.0	85.9	102.0	100	78.8
수입가격	32.6	68.1	105.0	100	56.2
소비자가격	36.9	63.3	87.2	100	101.4

자료출소 : 1)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서 작성.
다만, 1985년(=100)이 기준년도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의 요인분석」

제3장 제1절에서 고찰했듯이 '미·일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의 원인은 양국의 산업경쟁력
의 격차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무역수
지는 1980년도의 69억달러에서 1987년에는
521억달러로 7.6배나 증가해 왔다. 이것은
1970년대(25억달러에서 59억달러로 2.4배)와
비교하면 이상한 증가폭이다. 따라서 1980년
대에 들어서 새롭게 무엇인가의 요인이 발생
내지 변화해서 그것이 미·일 양국의 대외
수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3-3> 미국의 무역·재정적자, IS Gap의 동향
(단위 : 10억달러)

	1980	1982	1984	1986	1988
무역적자	31	38	122	155	137
재정적자	76	125	178	212	155
IS Gap	-7	9	96	134	108
대일무역적자	7	12	33	51	47

자료출소 : 1) 미국의 무역적자·재정적자는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S Gap은 OECD, National Ac-
counts, 대일무역적자는 통상백서. 다만, IS Gap은
지축부족액.

주성분 분석에서 힌트를 얻어 제1주성분에서 함께 추출된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재정적자, IS Gap의 동향을 정리해 보면 <표 3-3>과 같이 역시 이들 3개의 변수는 같은 증감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통상마찰을 둘러싼 중요한 경제 변수간의 관계를 중회귀분석에 걸어본다.

(국요변수간의 중회귀분석)

$$ATDE = C + a \cdot AGD + b \cdot AIS(-2) + c \cdot JER(-1) + d \cdot JIR, R^2 = 0.96, DW = 2.08$$

결정계수가 0.96으로 상당히 높은 설명력이 있음이 나타나 있다. 상관계수 매트릭스는 <표 3-4>와 같다.

<표 3-4> 상관계수 매트릭스

	ATDE	AIS	AGD	JER	JIR
ATDE	1.00	0.96	0.86	0.91	0.68
AIS		1.00	0.82	0.81	0.66
AGD			1.00	0.87	0.51
JER				1.00	0.66
JIS					1.00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에 기여하는 각 설명변수의 상대적 기여율이 회귀계수(소위 β계수)에 의해 즉각 표시되어진다.

Variable	Estimated Coefficient	T-statistics
c	-0.12	-2.49
AGD	0.45	5.46
AIS	0.55	5.89
JER	0.12	1.07
JIR	0.11	1.91

추출된 계수를 점유율(%)로 나타내면

AGD(미국의 재정적자)	36.6%
AIS(미국의 IS Gap)	44.7%
JER(일본의 환율)	9.8%
JER(일본의 이자율)	8.9%
합 계	100.0%

이들의 결과로부터 보면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의 35% 정도가 미국의 재정적자에서 45% 가까이가 미국의 IS Gap(저축부족)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의 80%는 미국 경제의 매크로 경제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결론이 된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제1절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재정책대 → 국민의 소득증가 → 소비증가 → 수입증가 → 무역적자증가라는 케인즈적 유효수요 사이클과 함께 금융의 자유화·국제화에 따라 재정책대 → 국내금리의 상승 → 달러자산에의 수요증가 → 달러강세를 불러(만델·프레밍효과) 무역수지 불균형에 연결되어 갔던 것이 생각되어진다. 즉, 1980년 이후의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고금리와 그에 따른 달러자산에의 수요증가(달러강세)를 부른 점, 이러한 달러강세에 의해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된 점이 짐작되어진다.

여기서 일본의 환율이 미국의 무역적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일본의 이자율이 有意하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국의 무역의존도가 서로 깊어서(미국은 일본의 제1위의 수출시장, 일본은 미국의 제2의 수출시장) 양국의 금융정책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쉽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들면 일본이 금융긴축 정책(이자율의 인상)을 취한 경우 소비·투자의 감소 → 내수시장의 냉각 → 경기위축 → 수출압력증대 → 흑자확대라는 식으로 케인즈적인 유효수요 사이클이 생각되어진다. 자본의 무국경화·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케인즈적인 플레임 워크에 덧붙여 이자율의 변화가 미·일간의 자본이동 → 환율변동 → 무역수지의 변화라고 하는 사이클도 중요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양국간의 정책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다음 호에 계속)